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naum

## 법공양 페이지

# 인과·업은 살아온 관습때문에 생겨

###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립니다

**문** '길을 묻는 이에게'란 지면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39세된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세 이후부터 꿈속에서 가위에 자주 눌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자거나, 회사에서도 혼자 낮잠 잘 경우에 여지없이 가위에 눌립니다. 늦은 밤에도 쉬 잠이 들지 못해 술을 먹고 잠을 청하는 습관이 지금 까지 왔습니다. 그 '가위'의 정체가 뭔지, 제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 그 누르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구니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물 하나를 받아서 영혼과 인연의 줄을 다 끊고 지금 이 몸통이 속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인연들이 전부 내 배낭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 배낭 속에서 과거에 진 업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몸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피로움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애고로 반영되기도 하고 유전성도 되고, 영계성도 되고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이려면 모든 것이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해서 풀고 다닐 수 있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고 놓으세요.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녹아지고요. 즉 말하자면 인과나 업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모두 관습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업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살아온 관습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세로 하나하나에 중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연의 악으로 깔으려고 하고, 선이면 선으로 깔으려고 두서없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중생들의 의식이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된단 얘기입니다. '모든 건 너와 나와 들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한다.' 이런 걸 깨닫게 된 업을, 즉

말하자면 원수였던 마음이 그냥 있어버리고 그냥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융화되고, 화목해지고 뭐 특별히 우뚝 솟는 거는 없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차차차 나중에는 정말이지 밝은 세상을 사시게 됩니다.

### 주인공의 무엇을 믿어야 하나

**문** 주로 저를 고민케 하는 것들은 교리나 신행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살다보면 부딪치게 되는 생활상의 문제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놓아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주인공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주인공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주인공이 존재함을 믿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주인공의 나뭇가지나 결국 주인공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뜻인지요?

**답** 여러분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잠나, 바로 공(空) 안에 들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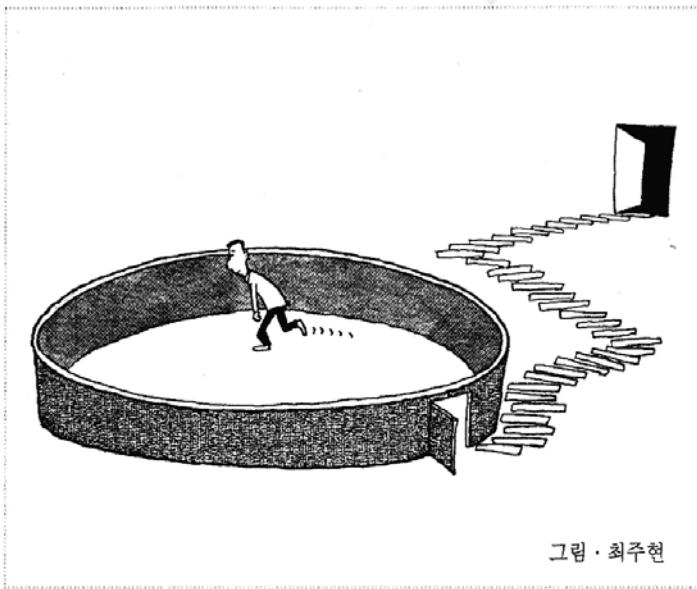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기탓으로 돌려야 마음공부하면 팔자운명 불을 자리 없어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맡겨놓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공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공했으니 포함해서 공한 주인공에 의해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도 이루고 세상이 공한 줄 알았고 내가 공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일체 생활을, 돌리고 내는 것을 물론 다 '틀리고 내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길잡이가 될 거다.' 하는 그 믿음과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나를 테스트 해보느냐 하고선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놓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은사 아닌 은사, 참 은사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은사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부딪침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걸 찾지 못해서 한데로 떨어지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일생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그런 일들이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안 보이는 자기한테 다 맡기고 '너만이 길을 찾아가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지켜주고 너만이 애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간절한 한마음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나요

**문** 마음을 연구해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변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까지

좋았던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고... 마음의 상태가 항상 고요하다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결국은 마음이시겠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것이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한 과보라면 자신이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참회로 인하여 자신의 업을 녹일 수는 있는 건가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때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과연 자기의 의지가 어느 정도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 우리는 한 지구를 집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뉘만 남독하고 이해하기 이전에 진짜로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구

내가 나를  
 형성시켰고  
 움직이게 하고  
 살리는 줄 안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살리는구나, 그리고 형성시켰구나 하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다 해도 그걸 낚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벗어나려 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알고 믿고 당당하니까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걱정을 한다면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잘되려고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 이 양갈래길을 다 자기 한 손에 쥐어안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팔자 운명에 의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가 말을 잘못 했다면 지금 그 잘못된 게 나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착하게 한 생각해서 말을 잘 하고 잘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 참부로 말하고 참부로 행동해서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은 자신의 탓입니다. 팔자 운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불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 하나도 나무 한 포기도, 인생들이 다 실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뭐 팔자니 운명이니 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들

잘못하고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눈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 열고 있죠. 발 움직여주세요. 냄새 잘 맡죠. 다 이렇게 뚫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보고 스쳐가게 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죠.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이예요.

우리는 살아오던 습이 있어서 그 살아오던 습을 놓칠 못해요. 아주 그 습을 떨쳐야 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오고 그랬으니까 못한다. 한다가 너무나 많고 또 알면서도 그대로 그냥 행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천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인생살이에 극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필요로써 한 지구라는 집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고 하면서 세계가 이렇게 극란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람들 마음에 의해서, 심상에 의해서 모든 게 전멸할 수도 있고 전부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반면에 세세생생을 얻게 돼서 불국토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각자 나를 믿는다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배후해 나오기 때문에 육체의 나로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조금도 없어요. 나라의 걱정도,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도, 지구의 집이라는 막이 터져서, 즉 말하자면 오존층이 터져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 힘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아무 걱정이 없는 반면에 그것은 다 대치가 되죠. 그래서 업을 녹인다. 어떻게 녹인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과제는 내가 어느만큼 그 자리를 믿고 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한 곳에서 나오든다는 것만 알면 업이 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격정이나 생각들을 모두 내은 그 자리에 다시 놓고 관하다 보면 마음상태가 자연히 고요해지게 되죠. 그렇다고 마음상태가 고요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 귀에서 원하는 쇠소리 들려요

**문** 항상 물려서지 않는 믿음으로써 큰스님과 함께 하는 제가 글로써 인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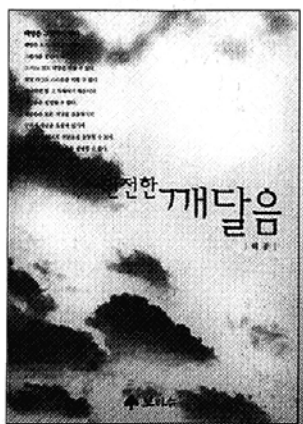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인의 실리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2600년전 붓다가 깨달은 무아 연기 중도는 무엇인가?

# 완전한 깨달음

해공 지음 / 7,000원



동서양 종교, 철학을 넘나들며 수행인의 길을 걸어온 해공! 그가 만난 위대한 스승들 <마하리쉬> <마하라지>.

미얀마에서 붓다의 실질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통해 개체적 에고를 초월한 철학적 무아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었던 생생한 체험

국민은행 270-01-0052-893 우체국 102723-0029385 예금주 : 도서출판 보리수 온라인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책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우송료는 본사 부담)

전국 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보리수 TEL (0342)701-0084

·죽·음·과·향·생·사·이·의·영·혼·을·제·도·하·는·법·교·와·정·토·의·가·르·침·

#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 스님 엮음  
 신국판 / 232쪽 / 6,000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들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들레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고 기뻐하였다. - 린포체 -

- 죽음에 다다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보이며,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 죽음 뒤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그때 어떻게 해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해탈하기 위하여 살아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적고 있는 것으로 중국과 티베트의 불교책 가운데서 정토신앙의 왕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 해탈법을 정리한 것이다.
- 중국 정토종의 린스승 열 분의 삶의 자취를 정리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출정로 37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